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웃을 때 [창세기 21:1-7]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 그 아들 이삭이 난지 팔일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6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은 낳았습니다. 기적입니다. 25년 전에 약속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약속은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입니까? 마지막에 웃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토록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시험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신뢰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는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약속이 더디 이뤄지는 것에 우리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시험받는 일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니까?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까? 드디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 같은 출생이 이뤄졌습니다. 출생으로 인해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출생은 하나님의 때에 이뤄졌습니다. 이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세 번의 깨우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세 번의 깨우침입니다. 그 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19).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창세기 1장과 유사합니다. 사라는 90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약속하셨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바탕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 때도 동일한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사역엔 더 강력한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주시기 위해 그 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래토록 기다려왔던 놀라운 기적의 약속.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4).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분은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분께서는 가장 넓은 의미의 약속에서부터 아주 세세한 일들까지 진실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일을 지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16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16).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은혜에 속하게 하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얻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를 납득시켜 줍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약

속의 증표를 받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언약을 순종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반영합니다. 그런 후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입니다. 믿음의 웃음은 채워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분의 약속에조차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6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세기 21:6-7).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비탄의 웃음은 축복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신앙의 웃음은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을 축복으로 바꾸셨는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은혜로 그들의 믿음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더 큰 기쁨으로 옮겨졌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을 가장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모욕과 경멸을 참으시고 모든 성도들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때에 이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분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의 죄와 부정한 것들을 자신 스스로에게 지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명확해 졌습니다. 삶을 이젠 더 이상 예전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태초부터 약속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기적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셨으며 그 분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들의 삶에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